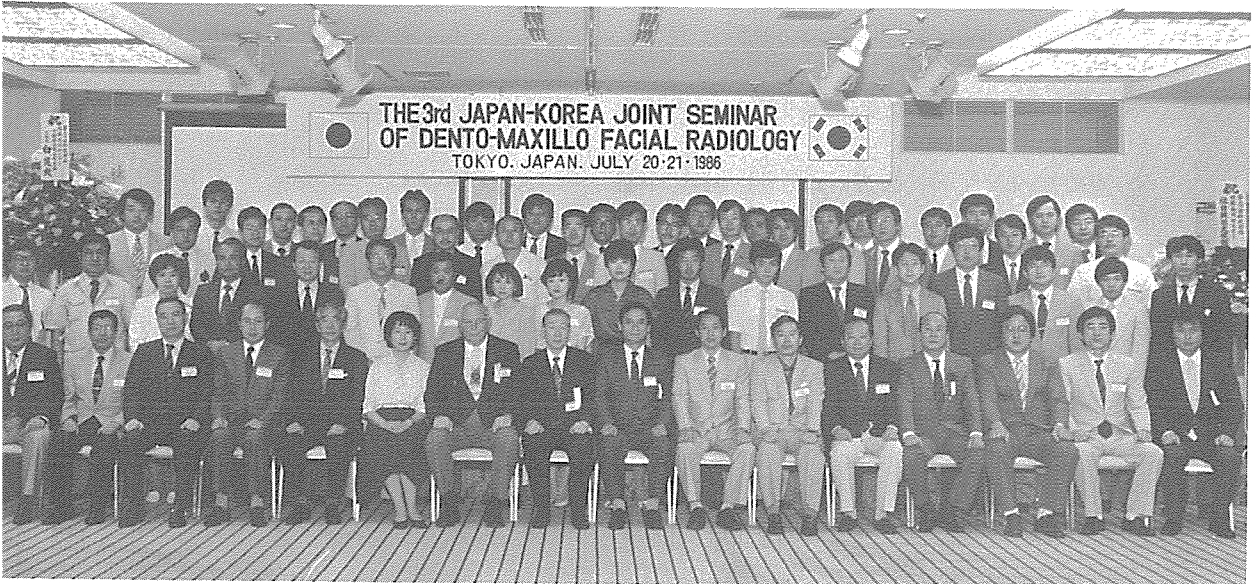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한·일 공동학술대회 큰 성과 거둬



지난 20, 21일 일본치과방사선학회 주관으로



(제3회 한·일 공동학술대회 참가회원 일동의 기념촬영 (중앙이 Charles Morris박사))

대한악안면방사선학회(회장·유동수)는 일본 동경서 개최된 제3회 한·일 치과방사선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내 치과방사선학의 발전 현황을 발표해 일본측에게 깊은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일본 치과방사선학회 주관으로 동경에서 개최된 동학술대회 치제중앙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는데 한국측에서는 유동수교수, 일본측에서는 마에 2수가 각각 좌장이 되어 연계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악안면방사선학회는 3개연계에 대한 강연과 5개연계의 증례 보고를 발표하였으며, 일본악안면방사선학회는 4개연계를 강연했고 11개연계의 증례 보고를 발표했다. 강연이 끝나면 5분간 연자가 질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강연시간보 질문시간이 더 길어 학술대회의 열기를 불어넣었으며 사회를 맡은 서울대의 박태원 교수는 질문과 답변을 한국어는 일어로, 일어는 한국어로 또는 영어로 통역까지 해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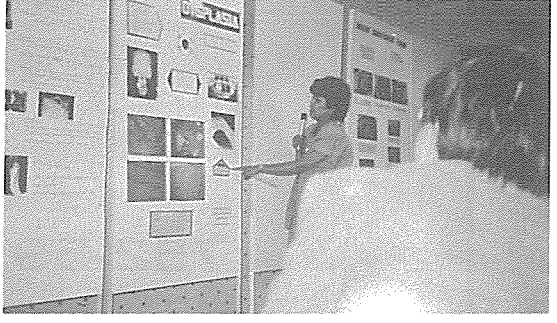
북경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수 우세봉씨는 이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다음 제4차 한·일 공동 악안면방사선학회 학술대회를 오는 87년 5월 6일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됨을 보았으며 연계와 연자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키 했다.

오는 94년에는 제10차 세계치과연맹 방사선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서울에 하기 위해 이번 특별 초청된 국제치과방사선학회장인 Charles Morris 박사(미)와 그의 의견을 교환한바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동 학회는 앞으로 10회 대회 한국 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날 강연에 참가한 측 연자와 연계는 다음과 같다.

- 국측 연제 및 연자**
- 박태원 (강효식) : The incidence of the odontogenic tumors of mesenchymal origins-dontogenic fibroma odontogenic myxoma, and ceusentifying fibroma.
 - 최승규 (이상재·민병순·황희환) : A clinical and radiographic study of 104 cases with cementoma.
 - 김창윤 : Cementoma of the jaws.
 - 최승규 : Benign cementoblastoma of the mandible.
 - 우경수 : Florid osseous dysplasia.
 - 우경수 (김은경) : Maxillary cemento-ossifying fibroma report of case.
 - 이정화 (박창서) : Central odontogenic fibroma of the WHO type.
 - 최효식 (최순철) : Soft tissue myxoma of mandible.



<한국측 대표 劉東株교수가 개회식 석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포스터 발표장에서 부산치대 교수인 羅慶秀박사가 발표한 Cas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